

“의협심 강한 군인이자 다정한 아빠였는데...”

‘네팔 여객기 참사’ 장성 상무대 상사 부자 안타까운 죽음

지역사회 활발한 활동...장성군 ‘자원봉사 표창’
기름 떨어진 산중 사찰에 폭설 뚫고 기름 배달도

“방학을 맞은 아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휴가까지 내고 갔는데...”

지난 15일 네팔에서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인 2명은 장성 상무대에서 근무하는 유모(45) 상사와 유씨의 열네살 난 아들로 밝혀졌다.

안타까운 사망소식을 접한 유씨의 부인 A씨는 17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유씨 부자는 지난 14일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출국했다. 15일 인도에서 네팔로 이동을 알리는 문자가 A씨가 받은 마지막 연락이었다.

A씨는 여객기 사고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들었지만 사고 여객기에 남편과 아들이 타고 있었으리라고

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을 떠올리며 “가족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다정한 남편, 밝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군 생활을 하며 상도 많이 받고, 일도 참 열심히 했다”고 말을 잊지 못했다.

유씨가 육군 상사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과 사회봉사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운동을 좋아하는 유씨는 10년동안 조기축구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축구회 활동을 함께한 지인 고태백(52)씨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상 본인의 자리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6년간 부회장을 하면서 축구 뿐 아니라 경기 후 식당을 비롯해 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모든 사람들을 세세히 살폈다는 것이다. 경기가 끝나면 운동장의 쓰레기를 모두 줍고 가야만 하는 사람이라 조기 축구회 회원들은 유씨를 차기 회장으로 낙점하고 있을 정도였다.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지난해 12월 2일 장성군으로부터 ‘자원봉사 유공표창’도 받았다.

유씨는 아버지로서도 완벽한 사람으로 주변에서 기억되고 있다. 사춘기인 아들을 데리고 캠핑을 자주 다녀왔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많이 따라 주변 부모들이 질투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유씨와 가족여행을 함께 다닌 고씨는 이번 사고로 숨진 유씨의 차남을 ‘표현을 참 잘하는 아들’로 기억했다. 고씨는 “유씨의 차남이 아버지한테 스텝 없이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씨는 “지난해 가족여행으로 광주에 맞잡투어를 다녀오게 너무나 생생하다. 아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휴가까지 내고 갔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황망해 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기록적인 폭설로 장성군 서산면 ‘묘현사’가 고립되자 한달음에 달려가 구조하기도 했다.

기름보일러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묘현사 묘각스님의 전화를 받아마자 휴가를 내고 기름통 두개를 양손에 쥐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400m 고지 암자까지 달려갔다.

묘각스님은 “덕분에 폭설을 잘 견뎌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전화를 했더니 외국이라고 연결이 안됐다”면서 “아직 마음도 못 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가슴이 미어진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22일부터 청신호만 우회전 3개월 제도기간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3개월의 제도기간을 거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해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제도기간이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네팔 참사’ 유씨 부자 시신 수습...외교부 장례 지원

네팔 포카라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 희생된 한국인 유모(45)씨와 유씨의 아들(14) 시신이 17일(현지시간)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추락 희생자 시신 2구가 이날 헬리콥터 편으로 포카라에서 카트만두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이번 사고 희생자 중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추후 카트만두로 옮겨진 뒤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공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희생자 신원이 공식 확인되는 대로 장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교통일위

원회 현안 보고에서 “외교부는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파견했다”며 “향후 사망자의 최종 신원 확인과 유가족 영사 조력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장례나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주네팔대사관과 서울에 있는 영사실에서 꼼꼼하게 다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네팔 중부 휴양도시 포카라의 신축 국제공항 인근에서 카트만두발 네팔 에티항공 소속 ATR72기가 추락했다. 유씨와 그 아들은 이날 네팔 당국이 발표한 이비행기 탑승자 명단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가칭)광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은 1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정부 해법안에 대해 반발 목소리를 냈다. /L남주기자mjna@kwangju.co.kr

구례군, 귀성길 교통사고 3배 급증

최근 5년 설연휴 사고 급증 지역

구례군 등 전남 5개 군이 설 연휴동안 귀성길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상위 20개 지역에 포함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설 연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타 지역 교통사고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에 구례군, 곡성군, 영암군, 화순군, 신안군 등 전남 5개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교통사고는 운전자 거주지와 교통사고 발생지역이 다른 경우를 뜻한다.

구례군의 경우 연간 타 지역 교통사고율이 23% 수준이나, 설 연휴 중에는 67%로 증가해 44%포인트 뛰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안·금산·기장군 이어 증가율 전국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곡성군은 연간 33%에서 설 연휴 67%로, 영암군은 연간 18%에서 설 연휴 50%로 타 지역 교통사고

율이 뛰었다. 화순군은 연간 27%에서 설 연휴 55%, 신안군은 연간 13%에서 설 연휴 40%로 증가했다.

연휴 전날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급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평소 전국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589건인데, 연휴 전날에는 하루 평균 748건으로 23%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설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400건 수준으로 사고 건수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2017~2021년 설 연휴 기간동안 총 412건의 사고가 났으며, 이 중 34.4%인 142건이 연휴 전날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총 595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6.7%인 159건이 설 연휴 전날 발생했다.

사고 100건당 사상자수는 평소 159명에서 설 연휴 기간 180명으로 21%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 인권상 반납·장관 고발 강제동원 ‘제3자 대위 변제’ 본격 대응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제3자 대위 변제’ 방식으로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법을 정한데 반발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과거 인권상을 수상한 시민단체는 인권상을 반납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하는 한편, 60여 개의 시민단체들은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를 바로 잡기 위한 새로운 단체를 결성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과 학벌 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7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인동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지난 2021년 받은

인권상을 반납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의 인권상 수상에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인권상을 받았다가 반납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행안부가 외교부 핑계를 대면서 수상을 계속 지연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행안부 장관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후에는 광주지역 6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가칭)광주역사정의평화행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일본 책임이 떠진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5년 위안부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모여 전국적인 행동의 시발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인 것이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윤 정부의 해법안은 일제에 고통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미쓰비시 등 피고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기 위한 해법이다”면서 “단순히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더 이상 일본에 과거사 청산 및 사회와 배상을 요구할 근거를 잃게 만드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벌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